

Kopac News

포장협회 상근부회장에 곽영구씨 협회 사업활성화 및 위상 제고 기대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는 최근 상근임원인 김영호 전무이사(한국포장기술연구소 소장)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곽영구 부회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곽영구 부회장은 협회의 창립 단계에서부터 크게 기여해 왔으며, 연포장업체인 삼진화학(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동안 뛰어난 업무 추진과 전문경영 능력으로 삼진화학을 업계의 상위 기업으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관리 경험으로 업체에 대한 이해가 깊고, 초창기부터 협회에 몸담아 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곽영구 부회장이 실무적으로 이끌어 갈 협회 살림이 보다 든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원장과 간담회 가져 산업포장 균형발전 등 의견 나뉨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신임 유호민 원장의 취임에 즈음하여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한용교 회장을 비롯한 관련 인사와의 상견례 겸 간담회가 지난 6월 4일 개발원 원장실에서 있었다.

간담회를 통해서 산업디자인과 산업포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개발원의 역할 및 관련 단체, 학계 등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참석자는 한국포장협회 한용교 회장을 비롯하여 곽영구 상근부회장, 임동진 부회장, 김선창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회장, 김영호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소장, 김광현 한양대 교수, 김지철 세종대 교수 등이다.



업계 거래질서 위한 결의문 채택

한국포장협회는 포장업계의 부당한 가격경쟁 지양 등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원사는 물론 업계의 참여와 협조를 구했다.

거래질서 확립운동을 위한 결의문

포장업계 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국내 포장산업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오늘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실로 여러분들의 땀방울 하나 하나가 모여 이룩한 결정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작금에 와서 일부 업체들의 부당한 가격경쟁 등으로 인해 거래질서 문란과 부조리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컨대 거래처에 촛지 및 선물주기, 동판값을 받지 않는 등의 관행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서로가 피해자가 되기를 자청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이룩한 우리의 터전을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문민시대의 출범과 함께 이제는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업계도 신한국 창조에 부응하여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협회에서는 가장 쉬우면서도 선뜻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아래 사항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모두의 동참을 구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대열에 참여해 오늘보다 더 풍요롭고 찬란한 내일의 포장산업을 창조하십시오.

결 의

1. 부당한 가격경쟁을 지양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자.
2. 거래처와 금품 및 선물수수 행위를 하지 말자.
3. 동판(銅版) 값 받지 않는 관행을 없애자.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